

‘시즌 4승’ 김광현, 컵스전 6이닝 무실점...3경기 연속 승리

평균자책점 3.11로 끌어내려...타석서 안타도

전반기 마지막 등판 안정...후반기 맹활약 예고

‘KK’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시즌 4승을 수확했다.

김광현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등판, 6이닝 5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펼쳐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 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승리투수가 됐던 김광현은 3경기 연속 승리에 시즌 4승(5패)을 달성했다.

2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선보인 김광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3.39에서 3.11로 끌어내렸다.

김광현은 타석에서도 안타를 쳐 2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150으로 높아졌다.

김광현은 경기 초반부터 직구와 날

카운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을 앞세워 컵스 타선을 분쇄했다.

김광현의 출발은 불안했다.

1회말 1사 후 크리스 브라이언트와 앤서니 리조에겐 연속 안타를 맞은 김광현은 하비에르 바에즈를 2루수 앞 병살타로 처리해 위기를 넘겼다.

김광현은 2회 역시 병살타로 위기를 넘겼다. 1사 후 니코 호너를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내보냈지만, 다음타자 이안 램을 유격수 앞 병살타로 유도해 이닝을 끝냈다.

김광현은 3회 2사 후 안타와 볼넷을 허용해 위기에 처했지만, 리조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4회 역시 무사 2루 위기에 처한 김광현은 패트릭 위스덤을 삼진으로 처리한 후 호너를 2루수 뜬공, 램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특히, 주무기 슬라이더의 구위가 빛을 발했다. 김광현의 슬라이더는 상대 타자의 헛스윙과 파울을 유도해 유리한 카운트를 이끌어냈다.

5회 첫 삼자범퇴를 기록한 김광현은 6회 바에즈에게 안타를 내준 후 세명의 타자를 모두 범타로 처리하고 임무를 마쳤다.

이날 김광현의 투구수는 93개(스트라이크 62개)였다.

김광현은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후반기에서도 맹활약을 예고했다.

김광현은 타석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내야안타를 쳤다. 시즌 3호 안타다.

세인트루이스는 홈런 3방을 앞세워 6-0으로 완승을 거뒀다.

세인트루이스 불펜진 역시 나머지 3이닝을 모두 무실점으로 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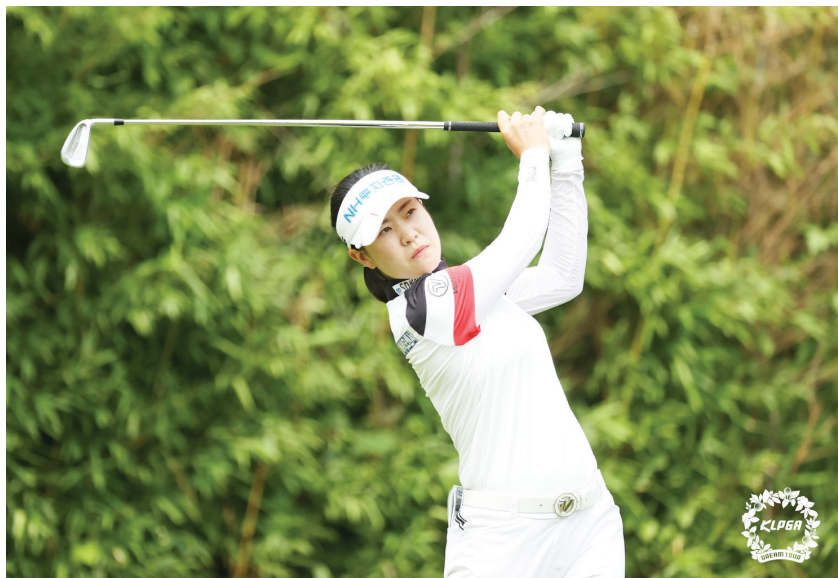
2연패를 끊은 세인트루이스는 시즌 44승 46패를 기록해 컵스(44승 46패)와 함께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공동 3위에 올랐다.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 6이닝 5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기록했다.

‘시즌 6승’ 박민지, 대보 하우스디오픈 초대 챔피언

우승상금 11억 돌파...시즌 최대승 기록도 넘을지 관심



박민지(23)가 2021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6승을 달성했다.

박민지는 11일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대보 하우스디오픈(총상금 10억원) 3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를 쳐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00타를 친 박민지는 마지막 18번홀에서 경쟁자들을 힘겹게 따돌려 우승을 거머쥐었다.

박민지는 시즌 중반에 6번째 우승을 일궈내는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다. 우승상금도 벌써 11억원을 돌파했다.

기록적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박민지는 2007년 신지에(9승)가 기록한 한 시즌 최다승 경신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대보 하우스디오픈 초대 챔피언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2타차 공동 2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박민지는 전반에 3타를 줄여 우승권에 접어들었다.

특히, 박민지는 7번홀 티샷에서 큰 실수를 범했지만, 침착하게 파를 잡아 위기를 넘기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12, 14, 16번홀에서 연이어 버디를 잡아낸 박민지는 17번홀에서 보기를 범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친 두 번째 샷도 홀컵에서 먼 곳에 위치해 버디는 다소 힘들어보였다.

그러나 박민지는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잡아내 우승을 거머쥐었다.

전날 1위였던 서연정(26)은 마지막 18번홀에서 보기를 범해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서연정은 생애 첫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오지현(25)은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해 3위에 올랐고, 정윤지(21)는 12언더파 204타를 쳐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

미국 농구, 평가전서 나이지리아에 3점차 패

올림픽 4연패를 노리는 최강 미국 남자농구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가진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서 패배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현지 언론은 “믿을 수 없는 패배”, “농구 역사상 가장 소강한 경기”라고 표현하며 미국 남자농구의 패배 소식을 전했다.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이끄는 미국은 11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서 87-90, 3점차로 패했다.

미국은 2008 베이징올림픽을 시작으로 2012 런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에 빛나는 세계랭킹 1위의 강호다.

이에 반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강호지만 랭킹은 22위에 불과하다.

미국팀 포포비치 감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 기쁘다. 패배를 통해 배우면 된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박상현, 2년10개월 만에 우승...통산 9승

박상현(38)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에서 약 2년 10개월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박상현은 11일 경남 창원시 아라미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KPGA 코리아투어 우승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총상금 5억원)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를 쳐 4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를 친 박상현은 전재한(31)을 2타차로 따돌려 우승을 차지했다.

2018년 9월 신한동해오픈에서 우승한 박상현은 약 2년 10개월 만에 통산 9번째 KPGA 코리아투어 우승을 거머쥐었다.

통산 상금도 38억5485만원으로 늘려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는 “오랜만에 우승을 해서 정말 행복하다. 어떤 대회이든 우승을 하면 항상 기분이 좋다. 최종라운드 경기는 솔직히 마지막 홀인 18번홀(파5)을 제외하고는 큰 압박이 없이 편하게 경기했다. 17번홀에서 파 퍼트를 실패했다면 18번홀에서 부담 없이 플레이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승 원동력에 대해 “상대 선수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었고 우승 경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 내 플레이



만 펼칠 수 있었던 것이 원동력이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날 4타나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상현은 올해 목표로 한국오픈과 KPGA 선수권대회 우승을 꼽았다.

그는 “한국오픈과 KPGA 선수권대회 우승까지 추가하면 나름 나만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의 대회인 만큼 우승 욕심이 크다. 또한 KPGA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그 대회의 평생 출전권을 받게 된다. 욕심이 난다. 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KPGA 선수권대회에서 경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로 누적 상금 40억원을 돌파하고 싶고, 제네시스 대상을 차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스

광주연고 신생팀 페퍼배구단 명칭 관심...9월께 공식 창단

새팀명 상표 등록 추진...다음달 초 확정될 듯

‘여자프로배구 7구단·광주연고’ 승인을 받은 페퍼저축은행배구단(가칭 페퍼배구단)의 공식 창단식이 9월께 광주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 새 팀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페퍼배구단은 공식 창단식을 9월께 광주에서 열기 위해 선수단 구성과 새팀명, 엠블럼, 유니폼 등을 제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페퍼배구단의 공식 팀명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배구연맹(KOVO) 연맹 등의 홈페이지에는 ‘페퍼저축은행배구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칭’이다.

페퍼배구단은 지난달 초 새 팀명을 정하고 공식 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등을 거친 뒤 8월 초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공식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팀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06년 농구이후 15년만에 겨울 프로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된 지역 배구팬들은 팀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 명인 ‘광주’와 ‘페퍼’를 넣은 ‘광주페퍼배구단’을 비롯해 광주시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들어간 ‘페퍼AI광주배구단’ 등 다양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페퍼배구단은 팀명이 확정되면 엠블럼과 유니폼을 제작해 공식 창단식

때 공개한 뒤 2021~2022시즌부터 새 이름으로 출전한다.

페퍼배구단 관계자는 “현재 선수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팀명은 상표 등록 절차가 남아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광주지역 배구팬들이 팀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조속히 확정지는 뒤 유니폼과 엠블럼을 제작해 공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페퍼배구단은 지난 5월13일 광주에서 연고지 협약을 맺은 뒤 지난달 22일 한국배구연맹으로부터 연고지 승인을 받았다.

페퍼배구단은 2012런던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형실(70) 감독을 선임했으며 헝가리 출신의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22) 등 9명의 선수를 영입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청 女양궁팀,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 단체전 1위

최미선 개인50m 3위

순천시청 양궁팀이 최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대회에 출전해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임동일 감독을 비롯해 최미선, 이은경, 박서진 선수가 출전했다.

순천시청 양궁팀은 단체전 4강에서 대전시체육회와 접전 끝에 5:4로 승리하고, 결승에서 청주시청을 6:0(55-49, 57-48, 54-39)로 완파하고 대망의 1위를 차지했다.

거리별 개인 종목에서도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미선(순천시청)선수가 50m에서 3위로 메달



을 획득하면서 결경시를 누렸다. 순천시청 임동일 감독은 “좋은 성과를 올린 선수단에 감사하고 더욱더 노력해 다가오는 전국체전에

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아르헨, 브라질 꺾고 28년 만에 코파 정상...우승 숙원 풀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가 라이벌 브라질을 꺾고 28년 만에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아르헨티나는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에서 벌어진 개최국 브라질과의 2021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앙헬 디 마리아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지난 1993년 대회 이후 28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통산 15번째 우승으로 우루과이와 함께 이 대회 최다 우승국이 됐다. 브

라질은 2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14년만의 결승 격돌에서 아르헨티나가 승리하며 브라질 안방 무패에도 제동을 걸었다.

두 팀이 결승에서 맞붙는 건 2007년 이후 14년 만이다. 2004년과 2007년 결승에서 연이어 격돌했는데 모두 브라질이 승리했다.

또 브라질은 그동안 홈에서 열린 코파 아메리카에서 모두 우승했지만 처음으로 안방에서 남의 잔치를 보는 신세가 됐다.

브라질은 1919년, 1922년, 1949년, 1989년, 2019년 우승 때 모두 개최국

이었다. 아르헨티나의 간판 공격수 리오넬 메시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세계를 대표하는 골잡이로 자리 잡고, 유럽에서 우승과 개인 타이틀을 휩쓸었지만 유독 대표팀에선 우승 연이 없었다. 이번 우승으로 한을 풀었다.

메시는 8강에서 1골 2도움, 콜롬비아와의 준결승에서 1도움을 올리는 등 이번 대회에서 4골 5도움으로 명성에 어울리는 활약을 펼쳤다.

뉴스